

# 고대문화의 찬란한 유물 고인돌... 인류 자산으로 잘 가꿔야

##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7>

### 제2부-선사와 고고

③ 선인들의 자취 '고인돌 시대'

####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

영산강과 섬진강 등이 흐르는 광주·전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농업에 적합한 지형과 기후를 갖고 있다. 특히 담양, 광주, 나주, 영암 일대의 영산강 유역 평야지대는 비옥하고 너른 농토가 펼쳐져 있어 이른 시기부터 천혜의 농사터였다.

또 갯벌과 섬이 많은 서남해안의 연안 생태계는 다양한 수자원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여수 돌산 송도나 해남 군곡리를 비롯해 서남해안과 도서지역 곳곳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흔적인 '조개무지'(패총 貝塚)들이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예로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의 정착생활과 농경이 이뤄졌다. 또 바다를 통해 중국과 일본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이 열려있어 다양한 문화가 이곳에서 교차했음을 볼 수 있다.

방학기가 물러가고 온화한 기후의 후빙기가 도래하면서 생활환경이 바뀌고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약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흙을 빚어 토기를 제작했으며 움집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이다.

전남과 전북지역의 해안과 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곳이다. 신안 흑산도와 거제도, 완도 여서도, 여수 돌산 송도와 안도, 군산 노래섬 등지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 신석기시대 단계로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는 조개무지에서는 낚시바늘을 비롯한 어로도구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이 식량을 강이나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로부터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영산강 분류의 여러 지역과 함께 황평강과 지석천, 함평천 등의 강과 하천에서 이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식량의 저장이나 조리에서 쓰였던 토기그릇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토기에는 덧무늬토기와 누른무늬토기, 그은무늬토기, 봉긋리식토기, 겹가리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어로도구로 그물추와 낚시바늘, 찌르개, 작살 등이 있는데 완도 여서도와 여수 안도, 여수 돌산 송도, 거문도와 신안 거제도 조개무지로부터 이음 낚시바늘과 이음낚시 연결부분이 발굴된 바 있다. 또 작살과 찌르개를 사용한 고기잡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 안도의 조개무지에서 작살이 발굴된 바 있으며 특히 완도 여서도에서는 뼈로 만든 작살도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그동안 사냥이나 고기잡이 열매따기와 같은 약탈적 방법의 식량획득에 의존했던 생활양식에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잉여생산물의 축적 가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또 잉여생산물이 쌓이면서 부를 축적하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나타나고 사회는 계층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자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 때문에 계층간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하면 한편으로는 농경지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위에 방어시설을 세우는 등 공동체가 보다 체계화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당시 사람들이 처음으로 금속제 도구인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연석을 가공하던 기초적 도구 제작 단계에서 주석과 구리와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금속을 배합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신소재의 첨단 도구인 셈이다.

청동기시대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뤄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고인돌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고인돌은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불리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다. 광주 전남지역의 고인돌은 남해안지역과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 중류역에서 그 밀집도가 높다.

영산강 유역의 고인돌은 영산강의 분류와 지류를 따라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데 주로 하류역과 인근의 지류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차 밀집도가 낮아진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고인돌 조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나주 남평 노동리 지석묘 1기에 대한 것이다. 그 뒤 1961년 김원룡



철쭉과 꽃잔디가 만발한 장성군 북일면 작은재에 수천년된 고인돌이 동지기를 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성을 우동마을에 있던 고인돌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길이 3.5m, 무게 24톤에 이르는 거석으로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덮개돌형 지석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탁자식·기반식·개석식 고인돌 등

### 다양한 유형은 한·중·일 교류 증거

### 한반도 고인돌 절반 호남에 집중

### 토기·검·화살촉 등 유물도 출토



여수 화장동 고인돌 아래의 무덤방.



고창 고인돌박물관.

교수에 의해서 담양 문하리 지석묘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이뤄진 여러 곳의 탐견설로 이루어졌다.

1996년에 이영문 교수 등에 의해 실시된 이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분포 조사보고에서는 전남지역에만 2208개군 1만 9058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영산강 상류 유역에 해당하는 장성, 담양, 광주, 화순 지역에만 459개소 2644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과거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던 고인돌 가운데 최근의 조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 고인돌만 해도 422기였다.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그 형태로 보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탁자식과 개석식과 기반식 등이 그것이다. 탁자식은 4매의 편평한 돌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뚜껑돌을 덮은 것



돌화살촉과 간돌검.

서로 다른 유형의 고인돌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동기시대 당시부터 이 지역이 한반도 내의 다양한 지역 혹은 주변의 중국 일본 등지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인돌의 크기는 다양하다. 수백에 달하는 초대형의 고인돌로부터 10t 안팎의 소형 고인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대의 장성, 광주, 대조담의 간돌이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동북대, 주암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였다. 고인돌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늬없는 토기와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토기, 검은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고 돌로 만든 것으로는 간돌검, 돌화살촉, 돌도끼, 솥, 갈돌, 가리비, 그물추 등의 석기가 나온다.

흔하지는 않지만 청동기들이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요령식동검과 요령식 청동투검, 청동화살촉, 한국식 동검 등이 대표적이다. 검은 옥과 대동옥을 비롯한 구슬류도 출토된다. 이 유물들은 대개 무덤방 안에 놓여 있었지만 무덤방 바깥 및 주변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무덤을 만들면서 진행된 의례행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지역에만 2만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 1700기 정도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지난 2000년 12월에는 화순의 고인돌과 전북 고창의 고인돌 밀집 유적이 경기 강화도의 고인돌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세계 거석문화유산 가운데 주목되는 유적이 된 것이다.

고대문화의 찬란한 유물인 고인돌을 인류의 자산으로 잘 가꿔 전라도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곧 후대들의 책무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국립광주·부여박물관 학예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술회의 기획위원  
-백제학회 이사 (2010년~현재)

### 전라도 들여다보기

#### 제봉 고경명과 포총사

김형주

제봉 고경명은 1533년 광주 압보촌(鴨保村) 출생으로 조부는 형조좌랑을 지낸 고운(高雲), 부친은 대사간 고맹영(高孟英)이며 시호는 충렬공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558년 왕이 직접 성균관에 나와 실시한 시험에서 장원하여 곧바로 전시(殿試) 응시의 특전을 받았다. 같은 해 식년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고, 이어서 공조좌랑과 시간원 정언 등을 거쳐 호당(湖堂)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후문관 교리가 되었다.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머문 시기였던 1574년 5월에 무등산을 등반하고 유산기인 '유서석록(遊瑞石錄)'을 저술하였다. 1581년 영암 군수를 지내다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김계휘와 함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4년 성균관 사예를 거쳐 1590년 승문원 판교에 등용되었고, 이듬해 동래부사가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이 의주로 파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각처에서 도망쳐온 관군을 모았다. 두 아들 고종후·인후로 하여금 이들을 인솔, 수원에서 왜적과 향전하고 있던 광주목사(廣州牧使) 정운우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이어서 나주부사 김천일, 회재 박광옥(朴光玉)과 의논해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단양에 모아 진용을 편성했다.

전국 팔도의 의병을 규합한 제봉은 손수 병력을 이끌고 충남 금산까지 나아가 1592년 7월 10일 의병장 조헌 등과 합세해 대규모 왜적들과 전투를 벌이다 중과부적으로 장렬히 순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하였고 광주와 포총사, 금산의 성곡서원·종용사(從容祠), 순창의 화산서원에 배향되었다.

포총사는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선생의 충절을 기려 광주 대촌동녘에 건립하였다. 고경명을 중심인물로 하고 고종후와 인후, 유평로와 안영을 배향한 사당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휘철되지 않았다.

1603년에 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총(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건립 후 6차에 걸쳐 중수하였고, 1978~1980년까지 현재의 새로운 사우를 짓고 정화사업을 하였다. 제봉의 장남 고종후는 진주성전투에서 김천일·최경희 등과 함께 순절하였고, 차남 고인후는 임란 때 부친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였다. 포총사 소장 자료로는 고경명친필 마상격문(馬上檄文), '제봉집'(齋峯集)·'정기록'(精氣錄, 71매) 등의 목판 493매, 복호인문서(復戶立案文書)와 고경명의 문과급제교지(1558) 등 고문서 6매, '포총사우가'(褒忠祠宇歌, 1614) 외 현판문 3매 등의 유물이 있다.

제봉 선생은 시문과 서예, 그림에 재능을 두루 겸비한 대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60세의 노구를 이끌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선 선생은 학문과 충절을 겸비한 실천적 지식인으로 우리 모두 우러러 경배해야 할 호남의 대표적인 의인(義人)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